

한강 노벨문학상 이후 ‘지역문학’ 새 길 모색



광주서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 열려
30일 오후 3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서

‘시와사람’ 등 지역 거점 문예지 7곳 참여
문학강연·‘문예지우수작품상’ 시상식 등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에 영광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고, 그늘이 빛만한 사람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갈 때 그 파급효과가 증폭되지 않을까. 팔랑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안도감에 도취한다면 문학의 정체는 불보듯 뻔하다. 단 한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문학의 만연한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됐고, 전세계문학과 비교했을 때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문학 전반에 걸쳐 구축됐다는 의미는 아닐 터다. 오히려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오랜 고질적 폐단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궤를 함께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채 1년이 안됐지만 문학분야 무엇이 나아졌는가를 물으면 딱히 손에 꼽을 만한 것들이 그다지 생각나지 않는다. 우선 중앙으로 집중된 문학권력을 분산하는 속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앙문학은 수준이 높고, 지방문학은 절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야말로 건설한 로컬문학을 고사시키는 독버섯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터부시하지 않고 공존해가야 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를 광주에서 열기로 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시와사람’이 지난 2000년과 2011년, 2017년에 연 바 있는 ‘제27회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는 이 지역에서 역대 네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며, 오는 30일 오후 3시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69)에서 각 지역 거점 문예지 대표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 진행된다.

이번 편집자회의는 계간 ‘시와사람’ 및 ‘시와사람시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광주의 ‘시와사람’을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가 오는 30일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 열린다. 사진은 시와사람이 주관한 2017년 대회(왼쪽)와 2011년 대회 모습.

비롯해 제주의 ‘다충’, 인천의 ‘리토피아’, 전북의 ‘문예연구’, 서울의 ‘미네르바’, 대전의 ‘시와정신’, 전남의 ‘열린시학’ 등 7개 문예지 발행인·편집자·시인 등 150여명이 함께 한다. ‘다충’에서는 12명, ‘리토피아’에서는 9명, ‘문예연구’에서는 16명, 미네르바에서는 14명, ‘시와정신’에서는 12명, ‘시와사람’에서는 31명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시와사람’의 명패 아래 참여할 지역 문인으로는 김중 박관석 강대선 조경환 조휘문 고정자 김은아 김효비야 서승현 이경은 전숙 정애경 조세훈 홍영숙씨 등이다.

편집자대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회원사 접수에 이어 식전행사, 문학강연, 음악공연, ‘계간지우수작품상’ 시상식, 회원사 소개 및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식전행사로 난타공연이 펼쳐지며, 본행사 첫번

째 순서로 문학강연이 마련된다.

강연은 박태일 명예교수(경남대)가 맡는다. 박 명예교수는 ‘광주·전남문학과 장소시’라는 주제로 ‘전남·광주의 잊혀진 시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들의 문학적 성과를 살펴본다. 광주문학관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마져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박 교수는 몇 년째 ‘시와사람’에 전남·광주의 근현대사에 활동했다가 사라진 문학인들의 삶과 문학을 복원하는데 힘을 써왔다.

잠시 쉬어가는 무대로 테너와 소프라노, 그리고 통기타 가수가 무대에 올라 꾸밀 음악공연이 선보이고,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는 7개 문예지에 한해동안 발표된 작품 중 우수작품을 뽑아 한명씩 시상하는 ‘제12회 계간문예지우수작품상’ 시상식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회원사 소개 및 시낭송이 이뤄지며, 바이올린 연주와 조휘문 시인의 노래 공연이 더해질 저녁만찬으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한다.

강경호 계간 ‘시와사람’ 발행인은 “그간 문학은 오래 서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대부분의 문예지와 문학단체, 작가들 또한 서울이라는 ‘중앙’에 포진해 활동하면서 지방문학을 서울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며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문단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 작가들은 발표의 지면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 구조 속에서도 지역에 새로운 문예지들이 발행되면서부터 발표의 장이 확장됐다. 오히려 지역 문예지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중앙문예지들보다 참신한 기획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현대사회의 단면과 인간 내면의 깊이 탐구

내달 6일 ACC ×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국립현대무용단 선정 안무가 3명 작품 국내 초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옥)과 국립현대무용단(단장 겸 예술감독 김성웅)이 함께 추진한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이 오는 9월 6일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른다.

이번 ‘코레오 커넥션’에는 지난 2월 국립현대무용단이 전국 오디션 통해 선발한 세 명의 안무가(기은주·김현재·안선희)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과 언어로 현대사회의 단면과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한다.

‘코레오 커넥션’은 지난해 국립현대무용단이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동시대적 시선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 중심의 창작 환경을 벗어나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 감수성을 안무가들

의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는 ACC와의 단독협업을 통해 무대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예술 생태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기은주(제주) 안무가의 ‘사라진 초상’은 상실의 감각에 주목한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시작해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에 깊숙이 잠식된 일상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윤곽을 포착한다.

이어 김현재(광주) 안무가의 ‘사랑의 형태’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본다.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신체의 진동과 흐름을 통해 감정의 파동을 시각화한다.



김현재 기은주 안선희

마지막으로 안선희(부산) 안무가의 ‘두 점의 몸’은 인간의 신체를 이중 구조로 해석한다. 물리적 기능과 구조라는 가시적 층위, 그리고 은유와 감각이라는 내면의 층위를 나란히 놓고 이 두 층위 사이의 긴장과 교차를 탐색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8000원.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의 삶 조명

여수연극협회, 내일 오후 4시 여수시민회관

여수연극협회(지부장 양은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수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의 삶을 다룬 연극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를 15일 오후 4시 여수시민회관 무대에 올린다.

극단 예술마당과 함께 마련된 이번 무대는 강남진 교수가 연출을 맡는 가운데 극중 인물로 극화된 윤형숙 열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굳건하게 지키신 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중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립의 의지를 표명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남긴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만큼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고귀



한 정신을 기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여수연극협회 관계자는 “이 감동의 무대를 통해 윤형숙 열사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윤형숙 열사라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침묵 속에서 되살리는 특별한 순간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은 무료이며, 4인 이상 예매시 5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티켓은 인터파크, 카카오톡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1-691-6646.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1등급 방호울타리(설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겸용(기준만족)
보도폭 확보 용이

사람과 도시

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민을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 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유수분리장치 외

빗물 저류 조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플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HANGIL

www.hgrad.co.kr

(주)한길산업

본 사 1(광장)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광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